

제조업 수익기반 취약상태 지속

경상이익비율 1.9%로 미국 4.4% 및 일본 3.3% 크게 못미쳐

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영실적은 나아졌지만 미국과 일본에 비교할 때 수익성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은행의 발표한 [기업 경영현황 및 향후과제]에 따르면, 1985년부터 2001년까지 2100여개 제조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경상이익 비율은 평균 1.9%로 미국(4.4%)과 일본(3.3%)에 비해 크게 낮았다.

국내 제조기업의 수익성은 외환위기 이전인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다만, 하이닉스와 대우그룹을 제외한 제조업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1999년 3.1%, 2000년 2.3%, 2001년 2.0%로 과거 평균보다 훨씬 높게 분석됐다.

제조업 경영분석 주요지표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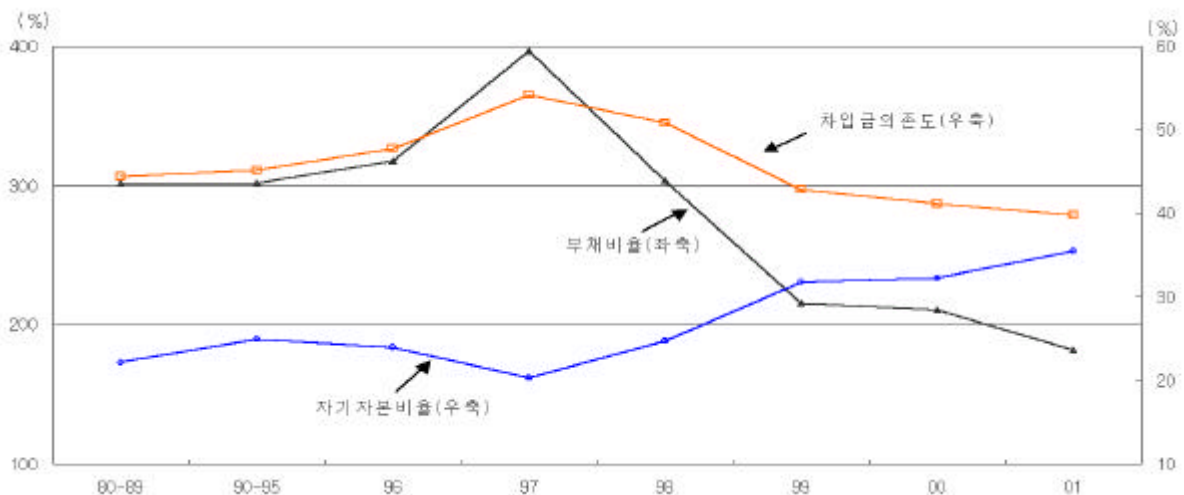
구 분	1980-89	1990-95	1996	1997	1998	1999	2000	2001	미국(01)	일본(00)
부채비율 ¹⁾	361.2	298.8	317.1	396.3	303.0	214.7	210.6	182.2	159.4	159.7
차입금의존도 ²⁾	44.3	45.1	47.7	54.2	50.8	42.8	41.2	39.8	27.4	29.7
영업이익/매출액	7.3	7.1	6.5	8.3	6.1	6.6	7.4	5.5	4.3	3.8
경상이익/매출액	2.2	2.3	1.0	-0.3	-1.8	1.7	1.3	0.4	2.0	3.9
당기순이익/매출액	1.0	1.6	0.5	-1.0	-4.4	0.0	-2.0	0.0	0.9	1.2
이자보상비율 ³⁾	133.4	125.6	112.1	129.1	68.3	96.1	157.2	132.6	190.6	551.0
매출액 증가율	19.1	15.8	10.3	11.0	0.7	8.0	15.2	1.7	-	-
총자산 증가율	19.6	17.7	15.0	22.4	3.5	2.8	-0.8	-1.8	-	-
유형자산 증가율	18.9	16.0	18.2	13.7	17.2	-0.0	2.4	-1.5	-	-

1) 부채/자기자본 2) 차입금/총자산 3) 영업이익/금융비용

자료)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, 미국 상무부 Quarterly Financial Report, 일본 재무성 재정금융통계월보

또 토지나 설비 등 유형자산으로 올리는 매출액 배율(유형자산 회전율)은 2001년 2.2배로 미국(3.8회)과 일본(3.5회)보다 낮게 나와 국내기업은 같은 규모의 매출을 올리려면 미국 및 일본기업에 비해 1.6-1.7배의 자산을 더 써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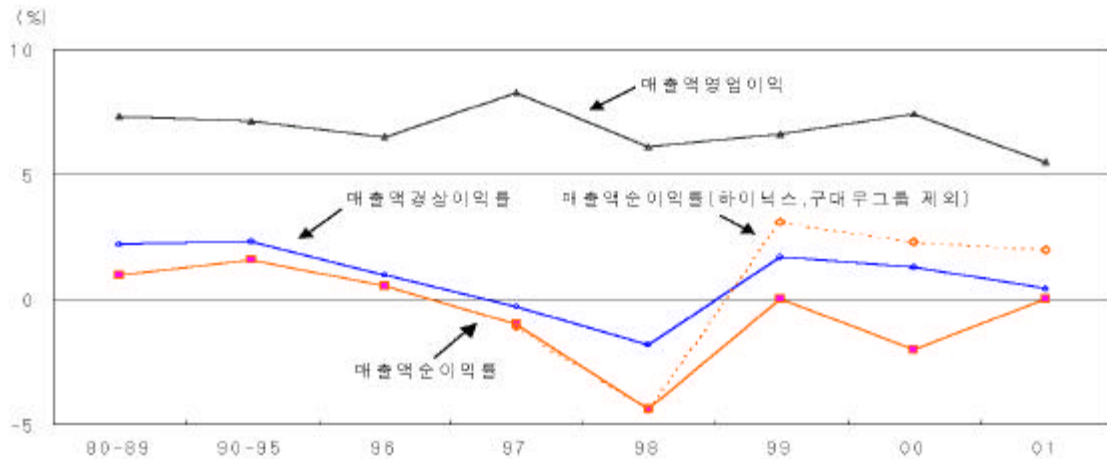
제조업 안정성 관련지표 추이



특히, 2001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이자비용 부담률은 4.2%로 미국(2.3%), 일본(0.7%)에 비해 각각 1.8배, 6배에 달해 이자가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.

총자산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차입금 의존도 역시 39.8%로 미국(27.4%), 일본(29.7%)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제조업 수익성 관련지표 추이



그러나 국내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 396.3%에서 2001년 182.2%로, 매출액 중 경상이익비율은 1997년 -0.3%에서 2001년 0.4%로, 차입금 의존도는 54.2%에서 39.8%로 각각 개선되는 등 경영실적이 크게 나아졌다.

한국은행은 국내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려면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개발해야 하며,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에 기업의 외화부채가 많아 환율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환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
< Chemical Daily News 2002/ 09/ 30 >